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벤 토레이

강원도 태백 예수원 삼수령 센터 추진본부장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0-21)

우리 주님이 배신당하고 체포되기 직전에 드린 위대한 기도-누군가는 유언이라고도 한-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게 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서로 사랑하라(요 13:24-25, 요15:12-17)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사도 바울과 요한의 글을 통해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사랑이 지상명령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중요한 조건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빌2:1-5, 요일 1:3-5, 2:10-11, 4:20, 롬 12:9-10, 엡 2:14-15의 말씀들을 읽을 때면, 저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을 그의 신실한 종들인 사도들의 글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수세기 동안 분열과 질서와 나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모든 죄로 인해 우리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제국하에서 거친 나무 십자가에서 못박히는 고통을 당하신 이래, 오랜 세월 그 몸에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 대천덕 신부님은 오래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센터를 세우라는 비전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바램은 이 센터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한반도가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 분단의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겸손하게 서로 끌어안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깨어진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치유 능력을 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대부받은 삼수령목장 부지에 학교와 센터를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꿈은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수령센터입니다.

2002년 8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주님께서 제게 복한 개방을 준비하라는 강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수령센터가 이 일을 위한 장소가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단법인 예수원의 대표이사인 제 어머니, 제인 그레이 토레이를 포함한 예수원의 회원들은 삼수령과 그에 속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제게 위임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미국에서 맡은 일을 하다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2005년 아내인 리즈 토레이와 함께 삼수령목장에서 살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비전이 구체화되게 하였고, 소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를 실현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일은 이 나라를 치유하고 재건하는 일은 세대에 걸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 통일을 이룬다고 해도, 마음이 일치될

이루기 위한 과정은 세대가 걸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2010 년 우리는 통일세대를 기르기 위해서 생명의강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시골학생과 도시학생,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탈북자, 예수원의 자녀, 선교사 자녀 등 모든 학생들을 위한 중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 입니다. 다양한 학생들이 이곳에서 서로에게서 배우며, 무엇보다 모든 장벽을 넘어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생명의강 학교와 함께 우리는 삼수령 센터를 짓고자 합니다. 삼수령 센터는 교사들에게 기독교 교수법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는 동시에,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 힘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해 일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많은 청소년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생명의강 학교는 센터의 핵심이 되며, 센터과 학교는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2002 년 가을,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르심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나이 53 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이 일을 시작하도록 촉구하고 있었고, 저는 삼수령 건축을 위한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또한 당시 대학에 다니고 있던 두 아들과, 고등학생이 딸을 포함한 가족의 필요도 간절히 구했습니다. 기도할때 주님은 제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강력해서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나에게 돈 달라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곧 이어서 “너는 나의 일꾼이고 모든 필요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나에게 돈 달라고 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님 앞에 제 필요를 구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원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 원칙으로 인해서 예수원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일절의 모금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커다란 모순이 발생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삼수령센터를 세우기로 결정하셨고, 이 일은 예수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일할 동역자를 구하고 자금을 요청해도 좋다고 분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제게 매우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고, 예수원의 영성과 습관은 뒤집혔습니다. 저는 재원의 공급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날 아침 오랫동안 이러한 생각들과 씨름하면서 마침내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대답은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돌아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일치를 위해 기도해라.” 즉각적인 제 반응은, “주님! 저는 그럴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하늘에서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게 더 쉬운데...” 계속되는 묵상 가운데, 주님은 저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일치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수 만 명의 한국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불러 일으키라고. 그리고 이 일은 곧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몇 년간 저는 여러 매체와 글을 통해서 대학의 학생들과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가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바램을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날 주님께서 제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날이 바로 북한개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북한개방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현재 상황에서 힘으로 북한을 향해 간다면, 북녘의 우리 동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우리의 분열과 시기와 부패만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수 년간 저는 교회안의 일치에 대한 필요와 개방을 준비할 장소를 세워야 할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임대한 건물에서 생명의강 학교를 시작했고, 이 장소는 내년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이미 커져서 이 장소로는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삼수령에는 건축을 위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필요에는 부족하지 않게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시지만, 건축을 위한 자금은 아직도 주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우리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의 일치를 부르짖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도자들이 함께 일할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이틀전 저는 신대원 졸업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고, 교회가 하나가 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일을 어떻게 후원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원하는 명망있는 사업가 부부와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서 일의 진척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점심식상중에도 일치를 향한 부담이 제 마음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는 제게 우리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큰 교회 하나가 우리를 후원하기보다는 여러 교회가 이 일을 위해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독교인이지만 사업가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생각이라고 제 의견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어렵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때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일이 한 대형교회의 주된 사역이었으면, 지금쯤 센터를 지을 수도 있겠다고.

점심식사후, 다음 약속지를 향해 가면서 그분이 하신 “어려울 것 같네요.”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주님께서 강하고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갑자기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달라는 요청대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외쳐한다는 메시지와 복한 개방을 위한 준비작업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수령센터와 생명의강 학교가 교회의 일치를 향한 표시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교회가 이 일에 나서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각자의 역량대로 건축을 위한 자금을 내는 것입니다. 일치를 위한 제 기도가 결국은 모금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파와 전통을 초월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센터를 짓는 일에 함께 할 때, 온 세상이 뜻이 일치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와 센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한 개방을 위한 진정한 준비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가 임한 후 몇 분이 지나서 목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떤 조건이나 명분 없이 이 일을 돕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신실함을 볼 수 있었기에 제게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과도 곧 만나서 함께 후원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과 방법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교회와 이 나라, 그리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삼수령센터와 생명의강 학교가 세워지도록 한국

교회가 더욱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협력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한 자금을 모아서 올 해에 올 여름에 이 일을 실현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일치를 세상에 보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교회가 교회의 일치를 위한 교파로서 우리 명예의 전당에 오를 것이며, 교회와 교파의 이름을 알파벳 순서로 기록할 것입니다. 기부금액이 크던지 작던지 그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대로 돈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부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센터가 지어지면 후원자들 목록은 일치를 나타내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됨을 한반도에 알리는 더욱 분명한 표시가 될 것입니다.(엡 4:13)

2011 년 3 월 18 일
벤 토레이